

개 인 과 공 동 체

마틴·부버의 말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한 부분 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집단주의는 인간을 한 부분으로써만 이해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의 전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인간의 얼굴을 비뚤어지게 하며, 집단주의는 개인의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 씌운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사람이란 언제나 <나> 라는 생각과 <우리>라는 생각 사이를 설새없이 왕래하면서 자아를 집단 속에 매몰시켜서 자아 상실을 경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자아를 분리시켜서 소외된 인간 생활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어쩌면 인간이란 이러한 두 갈래의 생활에서 방황하다가 일생을 마쳐 버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대 과학 기술로써 근대화만 잘 되면 복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만 복지 사회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틀림 없다면 과연 근대적인 인간상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 아무래도 근대적인 인간상은 조직 사회, 대중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의 극복을 시도하는 한편, 집단 속에 자아를 매몰시키지 않고서 본래적인 자아를 찾아내고 지켜 나가는 생활을 하는 인간이어야 할 것이다. 근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상사는 인간의 본래적인 관계의 양상이 한 쪽으로 무너져 가고, 새로운 인간 관계의 혼란에서 빚어지는 사전인 것 같다. 폭력과 각종 범죄가 연이어 일어남으로써 사회 생활에 혼란을 가져 오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부흥에 맞추어 윤

리적인 자아의 확립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변천하는 사회 생활에서 생겨지는 새로운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거점을 찾지 못한 채, 혼미 속에서 헤매는 근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전체성과 통합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근대적 인간상이라면, 경제 부흥에 못지 않게 이러한 통합성을 찾는 교육에 좀 더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